

## 17주 아름다운 궁전

아름다운 궁전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교회의 직원들은 먼저 크리스천의 믿음과 체험이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세례교인으로 받아 주었다.

크리스천은 계속 길을 걸어 나아갔다. 자신의 불행한 실패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눈을 들어 바라보니, 눈앞에 매우 아름다운 궁전이 있었다. 궁전의 이름은 아름다움(Beautiful)이었으며 왕의 도로의 길가에 있었다.

내가 꿈속에서 보니 크리스천은 가능한 한 그곳에서 머무르려고 서둘러 앞으로 나아갔다. 멀리 가지 않아서 크리스천은 매우 좁은 길로 들어섰는데, 그 길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곳에 문지기의 오두막집이 있었다. 길을 가면서 앞을 주의 깊게 살피자 사자 두 마리가 보였다. 그는 '겁쟁이와 의심을 되돌아가게 만든 위험이 저기에 있구나'라고 생각했다(사자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었으나, 크리스천은 아직 쇠사슬을 보지 못했다).

그때부터 크리스천은 두려워졌고, 겁쟁이와 의심처럼 되돌아가려는 생각도 했다.<sup>1</sup> 왜냐하면 자신의 눈앞에는 죽음만이 놓여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파수꾼(Watchful)이란 이름의 문지기가<sup>2</sup> 자신의 오두막집에서 크리스천이 멈춰 서서 돌아가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이를 눈치채고 소리를 질렀다. "당신은 그렇게도 용기가 없습니까?(막 13:24-37) 사자들을 두려워 마십시오. 그것들은 쇠사슬에 묶여 있으며, 믿음이 있는지를 시험해서<sup>3</sup> 믿음이 없는 자를 찾아내고자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길의 한가운데로 오시면 어떤 해도 입지 않을 것입니다."<sup>4</sup>

그때 나는 크리스천이 사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면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문지기가 지시한 대로 조심스럽게 길의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사자들은 으르렁거렸으나 크리스천에게 해를 입히지는 못했다. 크리스천은 계속 걸어가서 문지기가 있는 곳의 문 앞에 이르러 섰다. 그리고 손뼉을 쳐서 문지기를 불러냈다.<sup>5</sup>

크리스천은 문지기에게 "선생님, 이 집은 무슨 집입니까? 제가 오늘밤 여기에서 묵을 수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문지기는 "이 언덕의 주인께서 순례자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서 지은 집입니다"라고 대답했다.<sup>6</sup> 또한 문지기는 그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물었다.<sup>7</sup>

**크리스천** \_ 저는 멸망의 도성에서 왔으며 시온 산으로 가는 중입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바라건대 제가 이곳에서 오늘밤 묵었으면 합니다.

**문지기** \_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크리스천** \_ 지금 저의 이름은 크리스천이지만, 저의 원래 이름은 은혜 없음(Graceless)이었습니다. 저는 야벳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썸의 장막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창 9:27).

**문지기** \_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해가 저물었는데요.

**크리스천** \_ 좀 더 일찍 이곳에 올 수 있었는데, 언덕에 세워진 정자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아, 저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좀 더 일찍 이곳에 오지 못한 것은 잠을 자다가 구원의 증서인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그냥 산마루까지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고는 슬픔을 머금고 제가 잠을 잤던 정자로 되돌아가서 두루마리를 찾아가지고 오느라 지금 왔습니다.

**문지기** \_ 그렇다면 제가 이곳의 처녀들 중의 한 분을 부르겠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이야기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녀는 이 집의 규칙에 따라 당신을 나머지 가족에게 데리고 갈 것입니다.<sup>8</sup>

그래서 파수꾼이라는 이름의 문지기는 종을 울렸다. 종소리에 분별(Discretion)이라는 신중하고 아름다운 처녀가 문으로 나왔다. 처녀는 왜 불렀느냐고 물었다.

**문지기** 이 사람은 멸망의 도시에서 시온 산으로 여행 중인데, 피곤하고 날이 저물어서 오늘 밤 여기서 묵기를 저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불러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한 후에 당신이 그를 선하게 보면, 이 집의 법에 따라<sup>9</sup> 당신이 허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분별이 크리스천에게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고, 크리스천은 대답했다. 또한 분별은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게 되었으며, 오는 길에 무엇을 보았고, 누구를 만났느냐고 물었다. 크리스천은 이에 대답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그의 이름을 질문했다. 크리스천은 대답했다.<sup>10</sup> “크리스천입니다. 저는 오늘밤 이곳에 정말로 묵고 싶습니다. 이곳은 언덕의 주인이 순례자들의 휴식과 안전을 위해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별은 미소를 지었지만 눈에는 눈물이 어려 있었다.<sup>11</sup>

#### <Q&A>

1. 되돌아갈까 하는 생각은 어떤 상황임을 의미합니까? (마 14:30)

2. 문지기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렘 11:7)

3. 교회의 회원(세례교인)이 되려면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살전 3:5)

4. 길 한가운데로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전 4:6)

5. 크리스천이 손뼉을 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 7:7-8)

6. 아름다운 집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사 32:18)

7. 문지기의 질문은 무엇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딤후 2:12-13)

8. 문지기가 질문하고 대답을 들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 101:7)

9. 교회의 영적 질서는 어떻게 보존됩니까? (히 13:17)

10. 분별이 질문한 항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① 어디서 왔으며 ② 어디로 가는 중이며 ③ 무엇을 보았고 ④ 누구를 만났습니까?’

11. 분별이 눈물을 글썽거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눅 15:10)